

제3차 통신사업자협의회 회의 개최

통신사업자협의회 제3차 회의가 지난 12월 8일~9일 양일간 수원 그린피아 파크텔에서 정보통신부 관계자 및 한국통신, 데이콤, STM, SDS 등 25개사 통신사업자 57명(협회 직원 5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됐다.

우리협회가 개최한 이 회의는 크게 정부의 정책방향, 초청강연, 통신사업자 의견 등 7개 주제로 나누어져 진행됐으며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도 이루어져 통신사업자간의 의견을 협의·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 이현석 사무관은 「부가통신역무 활성화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부가통신역무 제공(내부보조, 이용자 요금덤핑, 회선설비 제공지연등)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력하게 조치(시정명령, 이용요금 조정 등)할 계획임”을 밝히고 “지속적인

부가통신 수요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통신 단말기 보급 및 공공 DB 개발 보급 추진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부 오남석 사무관은 「전기통신 요금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인 요금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지통신제도의 확대, 요금구조

의 투명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청연사로 참석한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 박사는 우리나라의 자가통신 설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자가통신제도의 현황, 그리고 자가통신설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서용희 국장은 “데이터망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별 위상과 역할에 따른 제공역무의 한계가 불투명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



▲ 제3차 통신사업자협의회 회의에서는 통신사업자간 의견을 협의·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 “사업자 위상에 따른 제공역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바람직한 접속체계로 접속번호(014XY)부여, 접속망 구성 등을 제시했다. 데이콤 최성원 과장은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배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시내망을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중립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대정보기술 정문성 상무는 “상호접속의 기본 목표는 사업자간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하고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공동구축, 공정성에 근거한 시범접속망 구현등”을 바람직한 상호접속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에스티엠 김교덕 본부장은 “EDI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ADMD의 지정 등의 당면 과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지정 등 제도개선,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편의 및 경제성 제고 노력, 이용자의 BPR을 통한 업무개선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이용구 과장)

일본, 신세대통신망 파일럿 모델사업 시찰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일본의 멀티미디어통신, B-ISDN 서비스 등 신세대 통신망 시범 서비스 참관과 동향과약을 위해 일본 관서문화학원연구도시(간사이)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기획단, 멀티미디어협의회,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원사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교토에 소재한 신세대통신망 이용고도화협회(PNES) 실험센터와 신세대통신망 실험협의회의(BBCC)를 참관했다.

신세대통신망 이용고도화협회에서 시찰단은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파일럿 모델 프로젝트를 소개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서비스를 광파이버네트워크를 통해 가정과 기업에 제공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1세기 광파이버네트워크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으로, 약 100억엔의 비용(센터설비 : 30억엔, 전송설비 : 20억엔, 기타부대시설 : 48.5억엔)이 투입되었으며 테스트 기간은 94년 6월부터 3년간, 테스트 대상은 약 300가구 및 11개 기업이다.

또한 시찰단은 신세대통신망 이용고도화협회가 현재 서비스중인 고품질 CATV, VOD-M, VOD-S, 비디오 텔레폰 등을 관람했으며 향후 서비스를 계획중인 일반 가정 대상 홈 쇼핑, 홈 가라오케, 홈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신망인

B-ISDN을 구현코자 하는 신세대 통신망실험협의회의에서 시찰단은 이 협의회가 추진중인 B-ISDN의 구축에 대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실험들 - 다지점간 영상전송, 환경텔레커뮤니케이션, ATM LAN, 고속 LAN 등의 개발 - 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참관했다. (문의 : 전성태, 관련기사 36쪽 참조)

제38회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22일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정장호 회장의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 제37회 이사회 회의록 ▲ 정보윤리위원회 활동 등 지난 11월~12월 사이 추진된 13개 주요업무 현황 ▲ '95 기본운영계획과 사업추진방향(안) ▲ 협회 발전계획 ▲ '95 직제개편 및 증원계획(안) ▲ 회비제도 개선방안 등이 상정됐다.

'95 사업추진 방향(안)에 따르면 우리협회는 금년 사업방침을 ▲ 정보통신사업 환경 조성 ▲ 정보통신 활성화 촉진 ▲ 세계화 추진 ▲ 건전 정보문화 창달 ▲ 협회 활동 활성화 등으로 정하고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심의안건으로는 ▲ 예산안 ▲ 지급보증기체 ▲ 회원가입 등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아이넥트기술 등



▲ 제38회 이사회에서는 '95 사업추진방향(안) 등 6건이 보고됐으며 예산전용 등 3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됐다.

13개 회원사의 가입이 승인돼 우리협회 회원사는 총 129개사가 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 '94 정보통신사업 현황 및 전망 ▲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 '95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관한 금융지원 방안 등 우리협회 발간 자료집들을 배포했다. (문의 : 임성무 부장)

LAN 산업 육성안 제출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LAN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LAN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 육성방안에 따르면 “국내 LAN시장은 협소한 내수시장,

기술력의 부족, 고급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관련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이미 대부분 외국제품에 잠식당했다”고 지적하고 “국내 LAN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관련업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육성방안은 국내외 현황, 국내 LAN산업의 문제점, 육성방안(기술개발, 수요창출, 제도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LAN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 전성태)

공개용 소프트웨어뱅크 서비스 개시

우리협회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뱅크를 오는 1월 16일부터

HINET-P망을 통해 서비스한다.

국내외에서 공개된 5천본의 소프트웨어들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한 이 소프트웨어뱅크는 한국통신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과제 중 하나로 지난 9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개발해 구축됐다.

이 공개용 소프트웨어뱅크는 17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대분류를 다시 중분류와 소분류로 구분, 자료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먼저 HINET-P망에 접속한후 공공DB 개발 메뉴에서 공개용 소프트웨어뱅크를 선택,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키워드검색이나 메뉴검색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이 공개용 소프트웨어뱅크 서비스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발굴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유통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는 소프트웨어뱅크의 확대개발을 위해 1만건의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 박민) ◆